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경험

홍진영¹⁾ · 김선녀¹⁾ · 주명진¹⁾ · 손수경²⁾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²⁾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The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Hong, Jin Young¹⁾ · Kim, Seon Nyeo¹⁾ · Ju, Myoung Jean¹⁾ · Sohn, Sue Kyung²⁾

¹⁾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ICU).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male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9 to february 2020 and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metho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Results:** 8 theme clusters, and 28 themes were identified. The 8 clusters were as follows; the feeling of burden in a busy and sensitive situation, the daily life facing life and death, female colleagues and patients who are still difficult to treat, a reliable and grateful male colleague, being proud of this role that a man can do, various experiences that improve me, constant effort to be recognized as a team member, and wavering and weighing in the career.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help to exp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male nurses working in the ICU and in other area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improve mutual respect and relationships between male and female nurses. It is necessary to offer mentoring programs for male nurses to adapt to nursing field.

Key words: Nurses, Male, Intensive Care Units, Qualitative Research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우리나라의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414,983명이고 [1], 그중 남자간호사 수는 17,863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남자간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2]. 이러한 현상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사회의 인식이 확대되고, 여성 직업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유연해져,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남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3]. 이처럼 남자간호사의 수가 증가하는 간호 현실에서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성이 보유한 장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간호 전문직 발전에 커다란 자

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자간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그들의 적응도는 매우 낮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5]. 아직까지 간호 분야는 여성 중심의 직업적 이미지와 남자간호사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실무현장에서 많은 남자간호사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6]. 실제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12.6%)에 비해 남자간호사의 이직률(27.1%)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향후 간호인력 관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2014년 남자간호사 면허신고자 7,443명 중에 근무지가 파악된 인원은 2,207명(29.7%)으로 그중 1,984명(85.8%)이 병원 재직자로 가장 많았다[8].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특징을 살

주요어: 간호사, 남자, 중환자실, 질적연구

Corresponding author: Sohn, Sue Kyung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Kamcheon-ro, Seo-gu, Busan 49267, Korea.
Tel: 82-51-990-6454, Fax: 82-51-990-3031, E-mail: sue@kosin.ac.kr

투고일: 2020년 4월 1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23일

피는 것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9]. 이처럼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로 인해 이들의 업무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6],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내 남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채용을 꺼려하는 실정이다[4]. 또한, 대상자로부터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남자간호사는 역할 갈등과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기도 하고[6], 병동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특수부서로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기도 하여 남자간호사의 근무지 배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10].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부서별 남자간호사 인력 배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지만 남자간호사들은 주로 전문화된 영역인 마취과, 중환자실, 응급실, 정신과 등과 같은 특수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11].

한편, 중환자실은 중증도 높은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파악하여 과학적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24시간 집중적으로 간호하는 곳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다른 부서보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12]. 이와 관련하여 중환자실 간호사 이직률은 다른 부서에 비해 10.0% 가량 높은 상황인데 숙련도를 요하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13]. 특히, 남자간호사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남자 동료들이 소수임으로 인하여 불안해한다[14]. 이로 인해 남자간호사들은 간호 전문가로서 계속적인 성장보다는 간호직이 평생 직업을 찾아가는 중간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15]. 이처럼 남자간호사들의 적응 문제는 여성과 다르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4]. 그러므로 남자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떻게 실무에 적응해 나가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수행된 남자간호사의 연구를 살펴보면 재직의도[3],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16] 등과 관련된 양적연구들이 다수 시행되었는데 남자간호사의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적합성 여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3],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해야 함을 보고하였다[9].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남자간호사와 관련된 단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남자간호사들의 총체적인 경험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자간호사에 관한 질적연구로는 간호행위 거부 경험[6], 이직 경험[5], 일반병동 적응 경험[10], 실무적응 경험[17] 등의 연구를 통해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언급된 연구들은 구체적인 특정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자간호사들의 근무 경험을 포괄

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근무지의 명확한 구분 없이 수행되었는데 타부서보다 이직률이 높고 남자간호사의 인력 배치가 많은 중환자실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경험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그 결과를 활용하여 남자간호사의 중환자실 적응을 돕고, 나아가 남자간호사의 효과적인 인력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Colaizzi [18]의 분석절차를 이용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질적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 선정은 편의 표본 추출방법과 눈덩이 표집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B광역시 소재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남자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8명이었다.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연령, 임상경력, 중환자실 부서, 소속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9~142개월까지의 경력, 8개의 부서, 5개의 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동의한 참여자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면대

면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일정과 장소는 참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면담 방향이 되지 않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은 “중환자실에서 남자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라는 주요 질문으로 시작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 초기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의미 있었거나 보람된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거나 극복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면서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후속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의도로 인한 응답을 유도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체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수행하면서 올 수 있는 젠더간의 차이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언어와 태도로 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솔직한 경험을 1시간 정도 털어 놓았고, 젠더 차이의 극복은 표정, 웃음, 한숨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은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이 반복되어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을 위해 녹음을 사용함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그대로 필사하였다. 1인당 면담 횟수는 1~2회로 5명과는 2회 면담이 이루어졌고 면담 시간은 50~90분이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침묵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참여자들은 면담을 마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뒤에 “속 시원하다”며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연구참여로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표시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Colaizzi [18]가 제시한 분석 단계를 적용하였으며, Colaizzi 방법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체험 속에서 공통의 속성 혹은 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하고, 특히 분석 절차에서 참여자의 확인 과정도 포함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질 확보에도 유용하다. 구체적 단계로는 첫째, 참여자 진술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 밑줄 긋고, 비슷한 의미의 진술들과 중복되는

진술은 소거하여 통합하였다. 세 번째, 각 의미 있는 진술에서 중심 의미를 찾고, 명확한 의미의 진술을 위해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맥락을 파악하여 종적, 횡적 맥락 내에 갖추어진 의미를 발견하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는 표현된 중심 의미를 주제와 주제군으로 조직화하였다. 진술한 주제군이 원래의 면담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보고 만약 주제군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음미하여 주제군 사이의 불일치점, 모순점이 있는가에 주의 기울였다. 다섯 번째, 자료의 분석결과를 철저히 서술하여 통합하였다. 여섯 번째는 기본 구조를 확인하여 조사한 현상을 명료한 진술로 서술하였다. 일곱 번째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대상자에게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시행 전에 K대학교 기관윤리생명위원회의 승인(KU IRB 2019-0071)을 받았다. 참여자에게 자발적인 참여와 언제든지 원하면 중단이 가능함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를 보장할 것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연구자가 관리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보고서에서도 익명으로 활용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6. 연구의 질 확보

질적 면담을 통한 자료분석은 Lincoln과 Guba [19]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신뢰성, 일관성, 중립성 및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신뢰성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서술이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에게 면담 기록과 분석을 보여주고 참여자가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신뢰성을 확립하였다. 일관성 확보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감시 가능성을 위해 자료수집부터 자료분석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제시된 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외부 확인을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1인과 간호학 박사 3인이 정기적 모임과 토론을 실시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편견을 통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자가 가진 선이해나 편견 등을 사전에 연구노트에 기술하여 검토하고 연구가 진행

되는 동안 판단중지를 통해 자료를 신중한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으로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적용성이란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적합한가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가 표현하는 내용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중환자실 남자간호사 1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보게 하여 의미 있는 진술이라는 반응을 보여 연구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7.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의 주 연구자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7년 동안 근무하였고 간호학 박사과정에서 질적연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질적연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지식 습득과 훈련을 하였다. 또한, 질적연구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다양한 문헌을 탐독하면서 연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하여 연구자 중 1인은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 및 발표하였고, 질적연구자를 훈련한 경험이 있다.

III. 연구결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8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현재 남자동료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30.1세(범위 26~40세), 임상경력은 평균 4년 1개월(범위 1년 6개월~11년 10개월)이었다. 최종학력은 7명이 학사, 1명이 석사이었고, 근무지는 내과계 중환자실이 5명, 응급 중환자실이 1명, 외상 중환자실이 1명, 통합 중환자실이 1명이었다. 소속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

곳, 종합병원 1곳이며, 결혼 상태는 미혼 6명, 기혼 2명이었다 (Table 1).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30개의 주제가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8개의 주제 모음이 구성되었다. 주제 모음은 ‘바쁘고 예민한 상황 속에 느끼는 부담감’,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상’, ‘여전히 대하기 어려운 여자 동료와 환자’, ‘든든하고 고마운 남자 동료’, ‘남자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로 뿌듯함’, ‘나를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경험’, ‘한 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 ‘진로에 대한 흔들림과 저울질’로 도출되었다(Table 2).

1. 바쁘고 예민한 상황 속에 느끼는 부담감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밤낮없이 일이 몰아치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전문성이 좋아서 지원한 참여자도 바쁘고 날카로운 분위기에 사기가 저하되고 넘기 힘든 벽으로 느꼈다. 참여자들은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를 간호하면서 환자의 변화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감시 장치들을 달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에 숨이 막히기도 하고 출근 후 퇴근 때 까지 못나가는 폐쇄된 공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담당 환자를 홀로 담당하면서 능력 밖의 일들을 마음의 짐으로 느꼈다. 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면 마음으로 버티나가기도 했다. 중환자 보는 것이 부담되고 환자가 죽을까봐 늘 마음을 졸였다. 이 내용은 ‘낮밤 없이 바빠서 지쳐감’, ‘중환자실이 숨 막히고 예민함’, ‘처음부터 중증 환자 보는 것이 부담됨’의 3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8)

No	Age (yr)	Length of ICU career (months)	Hospital type	Type of ICU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1	29	46	Tertiary hospital	MICU	Single	Bachelor degree
2	26	19	General hospital	ICU	Single	Bachelor degree
3	40	142	Tertiary hospital	CCU	Married	Bachelor degree
4	29	51	Tertiary hospital	TICU	Single	Bachelor degree
5	29	36	Tertiary hospital	MICU	Single	Bachelor degree
6	32	57	Tertiary hospital	EICU	Married	Master
7	27	21	Tertiary hospital	SICU	Single	Bachelor degree
8	29	18	Tertiary hospital	CCU	Single	Bachelor degree
Mean	30.1	49				

CCU=cardiovascular intensive care unit; EICU=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ICU=intensive care unit;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TICU=trauma intensive care unit.

Table 2. Themes, Theme Clusters of the Study

Theme clusters	Theme
The feeling of burden in a busy and sensitive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sy and exhausted during day and night. · ICU is suffocating and sensitive. · Burden of caring for a critical patient from the beginning.
The daily life facing life and de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ing sorry for dyi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 A heartless end-of-life care that cannot be consoled. · Becoming insensible in caring for dying patients. · Deepening of thoughts about life and death. · Doing your best regardless of the patient's life and death.
Female colleagues and patients who are still difficult to t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iculty in interaction with female nurses. · Be careful when nursing female patients. · Fear of gossip. · Discomforting to read faces.
A reliable and grateful male colleag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ing at ease in the presence of male colleague. · Feeling comfortable in the presence of male colleague. · Discovering the value of the job through male nurses. · Wanting to be a growth guide for male junior nurses.
Being proud of the role that a man can 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ong strength is advantageous at work. · Feeling responsible to be able to do something dangerous. · Change with the presence of men in ICU.
Various experiences that help me gr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ining various experiences and qualified skills. · Formed inner-maturity through work. · Feeling rewarded through the patients.
Constant effort to be recognized as a team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nk that it's also work that is unfair from senior nurses. · Trying to be friendly with colleagues. · Trying to create an amicable mood. · Feeling proud to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a team.
Wavering and weighing the c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future is vague. · Heart being swayed by the atmosphere. · Comparing ICU nursing with other careers. · Expecting improvement.

ICU=intensive care unit.

특히 나이트 또 업무도 루틴만 하면 참 좋을텐데 새벽에 막 1시 2시 3시에 환자들이 입원한다던지 수술갔다 온다던지 안 좋은 환자들이 온다든지 그런 불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구요.(연구참여자 4)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 낸 것 같긴 한데 예민한 그 환경...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 하나 하나도 다 사건이 되어서 막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라 해야 하나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좀 딱딱하고 경직되고 예민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코드 블루 환자들, 심정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오거나 인공심폐장치 환자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온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있을 때 갑자기 심계항진이 너무 심해지면서 와 내가 진짜 저런 환자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출근하기 전부터 이미 너무 막 힘들고 그랬었던 경험이....

트레이닝 3개월이 끝나고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생겨서 그 환자를 봤을 때는 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거 하나 조차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잘못 되지는 않을까...(연구참여자 8)

2.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상

참여자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담당 환자의 임종을 보면서 환자가 힘들어하고 보호자가 오열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옆에서 위로하고 싶지만 임종 환자를 빨리 정리하고 다른 환자를 받는 등 일을 진행해야만 하는 현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또한 수많은 죽음을 겪으면서 점점 임종에 무디어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지만, 환자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였다. 이들은 환자의 생사는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 내용은 ‘죽음을 앞둔 환자, 보호자가 안쓰러움’, ‘위로도 할 수 없는 비정한 임종 업무’, ‘점점 임종에 무더짐’,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됨’, ‘생사를 맡기고 최선을 다함’의 5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그 환자들이 엄청 안쓰러웠어요... 괜찮으실 때 의식 명료하실 때 저희랑 막 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엄청 힘들어하시고 숨을 헐떡이시니깐 마음이 너무 아팠고..(연구참여자 5)

저도 마음이 짠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옆에서 좀 위로도 하고 싶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빨리 내보내고 사후 처리하고 정리하고 차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일로 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깐...(연구참여자 1)

슬프고...정말 이것도 사람이 적응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무더지기는 하더라도요. 근데 그 무더지는 것도 약간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또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그건 무더져야 나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항상 들으니까.. 무더지려 생각하지요.(연구참여자 7)

사람들 컨디션 안 좋아서 돌아가시고 하니깐 어쨌든 삶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생각이 제 삶에도 영향을 분명히 줬어요. 사람이 살고 죽고 사는 삶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게 한다는 점도 일단 저에게 있어서 중환자실이 주는 의미 중의 하나인거 같고...(연구참여자 1).

나도 이제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 앞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뭔가 죽음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생각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아져서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깊게 하는 것 같긴 해요.(연구참여자 8)

안 될 거 같았는데 또 살아서도 나가는 거 보면 참 죽고 사는 게 자기 복이고... 아무리 의료진이 해도 죽을 사람 죽고 안 될 것 같아도 살 사람은 살아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 하는 거죠.. 하늘에 맡기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해야 되니까(연구참여자 3)

3. 여전히 대하기 어려운 여자 동료와 환자

참여자들은 중환자실 여자 동료를 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자 중심의 간호 사회에서 자신들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시선이 그들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자간호사들의 우회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여자간호사에게 오해를 받을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늘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최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젊고 까다로운 여자 환자들이 남자간호사를 꺼려하여 거절감을 느꼈고 그들에게 하대와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남자간호사들은 여자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 리드 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이 내용은 ‘여자간호사와 소통하기가 어려움’, ‘여자 환자 간호가 조심스러움’, ‘구설수가 두려움’, ‘눈치 보는 것이 불편함’의 4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별거 아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건데도 이상하게 좀 오해하고 받아들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자동료가 된 거 이거는 해라는 뜻으로 좀 그렇게 한건데 제가 못 알아듣거나 그런 것도 약간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에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걸 오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연구참여자 1)

나이 어르신 분들은 이제 아예 우리가 좀 더 다가가는 게 좀 조심스럽고 하도 막 이제 성추행이니 그런 게 또 예민한...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또 심하게 예민한 분들이 많으니까..(연구참여자 3)

구설수 같은 게 많이 오르내리고 하니 한마디 하면 열 마디가 되고... 여자선생님들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연구참여자 5)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제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오늘은 너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느낌이고 혼자서 무표정하게 일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중략) 내가 일하고 나보다 선배니까(신경 안 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좀 이해가 안돼요 일하러 왔는데 왜 자기의 감정을 티를 내고 표를 내지?? 일하러 왔으면 일단 하지 일할 때는 감정을 배제해야지 남자들은 저도 그렇고 일하러 왔으면 기분이 안 좋거나 해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걸 티 안 내려고 하거든요.(연구참여자 6)

4. 든든하고 고마운 남자 동료

참여자들은 남자 동료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놓이고 의지가 되는 든든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환자실의 경직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남자간호사가 있어 반갑고 마음이 편해지며 동질감 또한 느꼈다고 했다. 먼저 다가와 주는 남자 동료들이 너무나 고맙고 사적인 만남으로 어울리고 친해지며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적응하기까지 많은 지지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들에게서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연차 높은 남자간호사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서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유일한 청일점으로 임상의 불모지에서 견디어 내었다고 표현한 참여자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후배 간호사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장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이 내용은 ‘남자 동료의 존재가 있어 마음이 편함’, ‘남자간호사가 있어 위로가 됨’, ‘남자간호사를 통해 직업의 가치를 발견함’, ‘남자 후배의 성장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음’의 4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그냥 형들이 저를 좀 편하게 더 대해줘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쪽에 녹아들기 쉬운 건 사실이었던요 뭐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동질감이라고 해야 하나? 형들 그냥 정말 아는 형들처럼..... 뭘 물어 보려 해도 편하게 했으니까.....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이렇게 있는 곳이었다면...(침묵) 왜냐하면은 마음 편하게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학교에서도 형님 형님 이렇게 하던 사이니깐 여기 와서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연구참여자 1)

남자간호사들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위에 남자가 있어서 참 좋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도 그건 맞고.. 나도 남자간호사가 있었으니까 맨날 나가서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서 뭐 병원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거 맞고(연구참여자 3)

저 연차가 될 때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가치 있는 곳이거나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임상에 오래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아직 임상이 할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들이 위에 있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연구참여자 8)

저는 위가 없었지만 그 남자간호사들은 제가 성장하는

길이 따라가는 길이 되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중략) 남자간호사들이 잘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연락해주고.. 같이 일하게 되면 도와주고 뭐라 할 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먼저 가서 뭐라 하고 알려주고 후배들이 제가 겪었던 감정을 좀 덜 겪지 않을까...(연구참여자 6)

5. 남자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로 뿌듯함

참여자들은 간호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존재감으로 인해 뿌듯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체위 변경과 몸부림 심한 환자를 억제할 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흉부 압박을 할 때에도 자신의 강한 체력이 업무에 유리한 것으로 느꼈다. 이들은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언행에 긴장되고 무서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초기 대응의 책임자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남자인 자신이 있을 때 중환자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이들이 있는 것만으로 환자, 보호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자신의 존재가 감정적이거나 거친 상황에서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느꼈다. 자신들이 여자간호사들과 함께 일하므로 중환자실의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고 의료진이나 타부서와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내용은 ‘강한 체력이 일하기 유리함’,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낌’, ‘남자가 있어 중환자실이 달라짐을 느낌’의 3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자세 변경하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좀 수월하게 하지 않나 싶고 되게 흥분한 사람...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의 연장이죠 체력적인 부분이 꽤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대 근무도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남자라서 손 많이 가고 이리터블한 그런 환자만 주면 불리하죠 하하하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 환자가 아니더라도 남자니깐 가야지 내가 가서 중재하고(연구참여자 3)

그냥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그렇게 액팅아웃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밖에 없으면 액팅아웃을 하는데 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빈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조화롭다고 해야 하나 약간? 하하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긴 해요. 저희 중환자실에 남자간호사들 몇 명 있어서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연구참여자 2)

6. 나를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경험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업무가 능숙해짐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간호 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고 직접 일하면서 배우고 겪었던 일을 공부해 가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 기쁨, 만족,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 즉 환자, 보호자와 동료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이 넓어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져 감을 경험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환자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거나 건강을 회복한 환자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생사의 기로에서 간신히 벗어난 환자가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감사를 표하는 한마디를 적어 내려갈 때 이들은 진한 감동과 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내용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갖추’, ‘일을 통해 내면이 성숙해짐’, ‘환자를 통해서 보람을 느낌’의 3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봐왔고 또 새로운 환자를 보면은 매너리즘보다는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많다보니까 배운다라는.... 그러니까 어디서 돈 주고 못 배우고 여기 있어야만 배울 수 있다는 경험을...(연구참여자 4)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사람 대하는 거니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애착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안 좋게 말하면은 너무 깐깐하고 피곤하게 하고.. 저 분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 그걸 이해하고 그런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연구참여자 1)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병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환자를 볼 수 있고 기술력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는 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힘든 만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만큼..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좀 많이 커져 갔던 것 같고...(연구참여자 2)

7. 한 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

참여자들은 중환자실 간호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예민한 선배 간호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마저 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용기 내어 선배간호사에게 침묵과 어색함을 깨는 말 한마디를 건네었고 후배간호사를 도와주며 친근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고 작은 일들을 도우려는 진심은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계 속에 신뢰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의 예민한 분위기를 유화시키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마침내 참여자들은 자신을 한 식구로 인정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신이 구성원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움과 이곳이 진짜 직장인 것 같다는 생각에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이 내용은 ‘윗년차에게 억울한 것도 일로 생각함’, ‘동료들과 친근하기 위해 노력함’,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한 팀원으로 인정받아 뿌듯함’의 4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제가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배울 때에도 니가 진짜 잘못한 게 없지언정 그래도 윗년차 선생님이라 뭐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 해라 이렇게 배울 정도로... 내가 옳을지언정 그걸 말하는게 대드는게 되니까....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 해도 억울한 거 뭐 어찌겠습니까.(연구참여자 1)

먼저 가서 말 걸고 이런 거.. 선생님들이 말 걸면 엄청 좋아하시고... 말을 계속이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라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서... 선생님이랑 관계를 이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연구참여자 8)

남자 한 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는 분위기가 다르고 하더라도요. 여자만 있을 때는 예민한 분위기 살얼음 같은 분위기인데 남자 한 명이 있을 때는 그 냉기가 녹아 내리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농담으로 풀어준다던지 옆에서 되게 한 명 예민하게 악셀 밟고 있을 때 옆에서 브레이크 밟아주면서 분위기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준다던지... 차이는 있다고 확실히 생각이 되요.(연구참여자 4)

약간 소속감이 좀 안 들게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원으로써 일을 잘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웃음).(연구참여자 2)

8. 진로에 대한 흔들림과 저울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더 나은 직업이나 전직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입사한 참여자들조차 남자 동료들의 이직과 전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의 강도 높은 업무로 체력적 부담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원 내의 승진, 수입, 복지의 한계를 느끼며 여자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난 동료들의 위치나 환경을 부러워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잘 적응한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가 좁게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기대감으로 다른 직종을 기웃거리거나 현 직업과 비교하였다.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저울질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 내용은 ‘미래가 막연함’, ‘분위기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림’, ‘다른 진로를 저울질함’, ‘처우 개선을 기대함’의 4가지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바라보는 미래하고 남자로서 비전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와 닿는 부분도 잘 없고 보이는 뭐가 없어서...(연구참여자 4)

보통 임상에 있다 한 1, 2년 있으면 못 버티고 소방공무원을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저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이직을 저는 생각은 한 적은 있으나 아직은 별로...(연구참여자 8)

처음 1년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1년 채우고 2년쯤 되면은 이제 갈림길에 놓이는 거죠 내가 이걸 계속할 것인가? 2년 정도부터 조금씩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게 느껴졌어요. 임상에 남을지 다른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이걸 내가 평생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1)

중환자실이 일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나빠지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바쁘니까 그런거 같아요. 바쁜 이유가 사람이 적어서 바빠지는거 같아서 사람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월급을 좀 많이 주면은 그래도 이 돈 받고 하나만 아~(고개 끄덕임) 이렇게 좀 버틸 것 같은데... 우리가 내부 고객이잖아요. 병원의 복지 같은게 좀 떨어지는거 같다? 그런 거를 향상시키면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연구참여자 5)

IV. 논 의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기술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주제 모음으로 ‘바쁘고 예민한 상황 속에 느끼는 부담감’,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상’, ‘여전히 대하기 어려운 여자 동료와 환자’, ‘든든하고 고마운 남자 동료’, ‘남자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로 뿌듯함’, ‘나를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경험’, ‘한 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 ‘진로에 대한 흔들림과 저울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 모음인 ‘바쁘고 예민한 상황 속에 느끼는 부담감’에서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의 업무 부담을 무겁게 느끼면서 바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중환자실에 대해 느낀 바쁘고 예민함은 한정된 시간에 쫓겨 과중한 업무를 하는 압박적인 근무 환경과[20] 생명의 지표인 환자의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숨 막힐 정도로 긴장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21].

신규간호사들은 임상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전문직에 입문하게 되는데[22], 근무 초기에 경험한 참여자들의 부담감은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에 환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자신들의 미숙함에서 기인하는 일에 대한 버거움에서 가중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3년 이내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크게 호소하였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의 복잡한 환자감시장치, 중증도 높은 환자 간호 업무에 대한 적응은 중환자실 신규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사회화를 넘어서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Benner [22]의 전문가에 이르는 단계 중 근무경력 3~5년 차가 되는 숙련가 단계에서야 간호사가 조직 내 경험 속에서 전체를 보며 질적으로 도약하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근무 초기에 중환자실 남자간호사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무숙련도를 최대한 단기간에 향상시켜 빠른 시간 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간호 업무 외에 부과되는 부당한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모음인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상’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가운데 겪는 심적 변화가 담겨져 있었다.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 근무하기 전 임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으며 임종 시 환자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오염하는 보호자를 위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은 환자의 임종

마져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일의 연장이었고 잦은 임종을 겪으며 자신의 감정 또한 무뎠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수많은 임종을 경험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바빠서 임종을 하나의 일거리로 여긴 경험과 유사하다[21]. 또한 참여자들이 임종에 대한 감정이 무뎠다는 것은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반응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전으로 여겨진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던 환자의 죽음에서 감정적으로 균형 잡기를 위해 분투하는 것[21]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떠올리기도 하였고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자신의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이는 임종 환자를 돌보는 남자간호사의 대처 전략을 보여준 Wu 등[23]의 연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일과 삶을 분리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인데 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여가 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삶의 안녕을 유지해 나가는 것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Seol과 Koh [20]의 연구에서 임종간호 경험 후 진정한 돌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함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직까지 중환자실 간호사의 임종간호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 수행이 부족하기에 성별, 경력,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반복연구 및 임종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극복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여전히 대하기 어려운 여자 동료와 환자’에서는 참여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체험들이 묘사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별이라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답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자간호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면적인 의미만 수용한 적이 많아 곤란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참여자들의 말과 태도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여자간호사들에게 전달되어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런 오해들은 무성한 소문이 되어 돌아오기에 여자간호사를 대하는 것이 늘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여자간호사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시선,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수긍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는 남자간호사들은 여자 동료들의 행동, 의사소통 방식과 질서 등이 너무 다르며 이해하기 어려웠고[14] 현장에서 고립감을 느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24]. 남자간호사들은 여자동료들

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게 행동하며, 사소한 언행이라도 사람들의 입에 심하게 오르내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움을 경험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27]. 이것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간호계가 양성 균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자간호사는 여전히 소수자이자 주변인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간호학문을 배울 때부터 교육과정 가운데 여성 지배적인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어 간호직을 넘기 힘든 장벽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는데 교과과정에서 간호제공자를 여자(she)로 표현하거나 남자간호사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25,26]. 그러므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남녀간호사들이 서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점검과 더불어 여자간호사가 우세한 실무현장에서도 양성의 조화를 위한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여자 환자 간호 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남자간호사들이 여자 환자에게 간호수행을 할 때 부적절한 접촉으로 오해받거나 간호능력에 상관없이 간호제공자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한 연구[6]와 남자간호사에게 특정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는 고정관념을 경험하는 것[24]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남자간호사의 수적 증가가 선입견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15] 지금도 여전히 이들에 대한 편견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고정된 시선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과 병원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 여겨진다.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환자와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될 때 자신을 남자가 아닌 간호사로 인식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6]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남자간호사 스스로가 전문직업인으로서 태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 모음인 ‘든든하고 고마운 남자 동료’에서는 참여자들이 남자간호사라는 평범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동지가 있으며 그들의 힘겨움에 대한 깊은 공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행자로서 든든한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차가 낮은 참여자들은 연차 높은 남자간호사를 임상의 롤모델로 여겼는데 일이 몰아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주고, 사소하게 모르는 것들을 질문해도 혼내지 않고 설명해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감정적이지 않은 태도가 귀감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연차 높은 참여자들은 후배 간호사를 이끌어가는 부담감과 동시에 그들이 자리잡

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들은 남자 후배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소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조언과 격려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0]의 연구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남자선배 간호사를 형처럼 여기고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함을 느끼는 것과 Shin [27]의 연구에서 동성 직원은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큰 버팀목이 되어주며 선임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선구자적 위치가 부담된다는 것과 유사한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자 동료의 존재는 남자간호사가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인사정책 관리를 위해 부서 배치 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남자간호사를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인 ‘남자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로 뿌듯함’은 참여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묘사되었다. 참여자들은 외부와 차단된 폐쇄된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소란피우는 환자, 보호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면모를 드러내었고 여자동료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유리한 자신들이 중환자실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Kim 등[10]의 연구결과에서 남자간호사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일할 때 당당함을 느끼는 모습과 유사하였다. 반면에 Ahn 등[15]의 연구에서는 남자간호사들이 신체적 조건과 기구 조작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로 인해 힘든 업무가 자신의 몫이 되고 부가적인 일까지 떠맡게 될 때 주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 지원한 간호사인 점을 고려할 때 책임과 자기능력, 직업을 통한 능력 발휘 등과 같은 내재적 직업 가치관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자인 자신들이 있어 중환자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아닌 자신들의 존재만으로 중환자실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남자라서 선배 여자간호사들에게 털 혼나기도 하였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환자실이 조화로워지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간호사는 여자 위주로 구성되었던 간호 조직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28],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이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우하는 것[4]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남자간호사가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남녀 간호사가 상호 협력하여 바람직한 간호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6] 남자간호사들의 강점이 실무에서 더 발휘

될 수 있도록 여자간호사의 협력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여섯 번째 주제 모음인 ‘나를 성장하게 하는 다양한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신규 시절 역량이 부족하고 미숙하던 자신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지며 실력까지 한층 도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참여자들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간호사가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거나 퇴원한 환자가 찾아와줄 때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한 결과[10]와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의 돌봄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 결과[2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진심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직에 대한 소명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은 성별을 떠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가 지녀야 할 필수 덕목이며[28], 한 개인이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아실현이므로[29]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가 소명의식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 숙달과 적응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간호직의 발전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본 연구의 일곱 번째 주제 모음인 ‘한 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서는 참여자들이 중환자실의 구성원이 되고자 분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임상 현장에서 남자간호사가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이다[28]. 참여자들은 중환자실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일로 여기며 참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무 환경이 수직적이고 불합리한 모순이 많다고 느끼지만 조용히 묻어 지내는 Shin [2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들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긴장감을 낮추는 역할을 자청하며 팀원들에게 일상의 대화를 건네며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깨뜨렸다. 남자간호사들은 냉랭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농담을 건네며 중환자실의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중환자실의 결속력을 위해 솔선수범하였다. 이는 여자간호사들의 모임에 동석하고 그들에게 맞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5]과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여 상대와의 관계에서 각 대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자신이 먼저 변화하기로 결심

하는 경험[10]과도 일맥상통한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마음을 다한 부단한 노력 끝에 마침내 중환자실의 한 팀원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격스럽고 벅찬 느낌과 동시에 소속감이 생겨 안정된 마음을 경험하였다. 이는 남자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하여 정착의 비결을 습득하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14].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중환자실의 한 팀원이 되기 위한 힘겨운 과정을 지나면서 보다 넓은 이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주제 모음인 '진로에 대한 흔들림과 저울질'에서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경험하였는데 이 결과는 남자간호사의 경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12]. 일부 참여자는 중환자실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기대하였는데 이것은 남자간호사의 재직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3].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남자간호사들이 경력을 쌓은 뒤 소방공무원을 탈출구로 여기며 임상을 떠난다고 하였는데 자신들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입사하였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림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행정부서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는 모습[24]과 유사하다. 숙련된 중환자실 남자간호사의 이탈은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인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관은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보수 및 승진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여 실현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의 경험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임상 현장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남자간호사의 효과적인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일촉즉발의 중환자실 간호 현장에서 중증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잦은 죽음을 목도하며 지냈으며 여자동료 및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 동료의 든든한 지지 안에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며 긍정적인 현장 경험을 하며 다양한 상황을 통해 성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를 중환자실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자 동료의 존재는 남자간호사가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므로 부서 배치 시 이를 반영하는 인사정책과 남자간호사 멘토링 제도를 격려하는 것과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 및 숙련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과 관계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중환자실의 팀원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간호사들의 강점이 실무에서 더 발휘될 수 있도록 여자간호사의 이해와 조력을 바탕으로 남녀간호사 간 상호 존중을 위한 원활한 소통 등의 능력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미래가 막연함을 경험하였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보수를 추구하면서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남자간호사들이 근속할 수 있는 병원기관의 처우 개선과 업무환경 구축 전략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남자간호사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자간호사들의 적응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전략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남자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는 여자간호사들의 체험을 연구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험으로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면 남자간호사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병원의료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 배치 현황과 근무연수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하여 의료 환경 및 근무환경의 처우 개선에도모하고 간호의 발전적인 미래를 조망해보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

1. Korean Nurses Association. Data of nursing statistics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9 [cited 2020 Jan 30].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2. Lee JS. The era of 20,000 male nurses was held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Feb 25 [cited 2020 Feb 25].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1&idx=24940>.
3. Yu M, Kang KJ, Yu SJ, Park MS. Factors affecting retention intention of male nurses working health care institu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 23(3):280-289.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3.280>
4. Suh YO, Lee KW. Female peer nurse's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mal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 2017;23(1):33-44.
<https://doi.org/10.14370/jewnr.2017.23.1.33>
5. Kim HS, Lee JS.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47(1):25-38.
<https://doi.org/10.4040/jkan.2017.47.1.25>
 6. Choi GH, Kim HJ, Kim JH, Nam ES, Hyun HJ, Kang HW, et al. Male nurses'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1):16-28.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16>
 7. Yang YH(2017). "No nursing work, fix a PC..." male nurses leave the hospital [Internet]. Seoul; Maeil business news korea. 2017 Dec 2 [cited 2020 Mar 3]. Available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2/797985/>
 8. Korean Nurses Association. The 10,000 period of male nursing students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2014 [cited 2020 Feb 15]. Available from: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2014/read_article.php?webzine_id=42&sub_cat_id=449&is_sub_no=710&article_id=956.
 9. Hwang HM, Kim MJ.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1):32-41.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1.32>
 10. Kim JH, Park KO, Kim JK, Yun HJ, Lee JH, Cho EK, et al. An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at general nursing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 22(5):496-506.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496>
 11. Jung YS. The key to adapting to male nurse wards is overcoming prejudice [Internet]. Seoul; Medical Newspaper. 2017 Aug 7 [cited 2020 Mar 3]. Available from:
<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173>.
 12. Hwang JN, Park WJ. Influence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on nursing performance of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18;11(3):58-70.
 13. Hwang JH. ICU nurse 'burnout' risk, desperate need [Internet]. Seoul: MediGate News. 2018 Jan 5 [cited 2020 Feb 26]. Available from:
<https://www.medigatenews.com/news/1960397162>.
 14. Oh SE, Jang HY.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n male nurses' adaptation experiences as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2018;3:12-19.
 15. Ahn KH, Seo JM, Hwang SK.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09; 21(6):652-665.
 16. Ahn MK, Lee MH, Kim HK, Jeong SH.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2):203-211.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2.203>
 17. Son HM, Koh MH, Kim CM, Moon JH, Yi MS.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3;33(1):17-25.
<https://doi.org/10.4040/jkan.2003.33.1.17>
 18.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8-71.
 19.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1985. 416 p.
 20. Seol EM, Koh CK. Experiences of critical care nurses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18; 11(2):1-10.
 21. Jang MS, Kim SJ. Person-centered relational care experienced by critical care nurses: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9; 49(4):423-436. <https://doi.org/10.4040/jkan.2019.49.4.423>
 22. Benner P. From novice to exper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82;82(3):402-407.
 23. Wu TW, Oliffe JL, Bungay V, Johnson JL. Male ICU nurses experiences of taking care of dyi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 gend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2015;9(1): 44-52. <https://doi.org/10.1177/1557988314528236>
 24. Rajacich D, Kane D, Lafreniere K, Freeman M, Cameron S, Daabous J. Male RNs: Work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stay in the profession.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Archive*. 2014;46(3):94-109.
 25. McLaughlin K, Muldoon OT, Moutray M. Gender, gender roles and completion of nursing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010;30(4):303-307.
<https://doi.org/10.1016/j.nedt.2009.08.005>
 26. O'Lynn CE.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nursing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4;43(5):229-236.
<https://doi.org/10.3928/01484834-20040501-08>
 27. Shin SY. Clinical work experience of male nurse with career: A phenomenological study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18. p. 1-90.
 28. Kronsberg S, Bouret JR, Brett AL. Lived experiences of male nurses: Dire consequences for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2018;8(1):46-53.
<https://doi.org/10.5430/jnep.v8n1p46>
 29. Kim JK. Subjectivity of job values among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16;34:5-25.